

구멍같은 것은 없었다. 이 탑도 이미 藏置品을 完全히 잃고 있었으나 基壇 下臺石과 地臺石 사이의 間隙에서 새끼손가락만한 銅製 如來立像 이 하나 發見되었다. 높이가 一·四五寸 臺徑 〇·六寸 늑쓸어 細部는 漆 漆치 않으나 오른쪽 손을 들고 왼손을 드리우고 있는 手形은 新羅統一 時代의 造像에서 흔히 볼 수 있는 佛像이다.

高麗梵鐘의 新例(其三)

黃 壽 永

(11) 靑銅小鐘 서울 李弘根氏 藏

總高一八cm 下徑一〇·五cm 上徑七·五cm의 小鐘인데 出土經緯는 未詳하다. 通型으로서 甬筒頂上이 方形을 이루고 그 四隅에 小珠各一粒 이 配置되었다. 上緣에는 넓은 立狀花瓣形이 間隔을 두고 七個 둘러있고 上下帶에는 草花文帶가 淺刻되었다. 上部에는 작은 四方乳廓內에 花紋 九乳가 있고 그 間地下의 鐘體에는 複蓮圓形撞座와 合掌形 菩薩坐像(蓮 座上) 各二가 交代하였는데 모두 鐘身에 比하여 大形이다. 鐘體에 一



第二卷 第一號 通卷 六號

破孔徑二·五이 있는 以外는 保存이 良好하다. 鐘體(乳廓下)에 記銘 數行 이 細刻되었으나 靑 鏽로 判讀至難하다. 下代로 推定된 小 鐘의 一例로서 形態 는 아담하고 龍鈕와 도 調和되었으나 彫 飾은 鈍厚하고 流麗

하지는 못하다.

(12) 善山出土靑 銅小鐘 無銘

總高十六cm 下徑 十一cm의 小鐘으로 서 昨年末에 出土되 었다고 하는데 龍鈕 가 없고 頂上中央에 는 小圓筒이 貫通되 었고 다시 筒上에 三山形의 꼭지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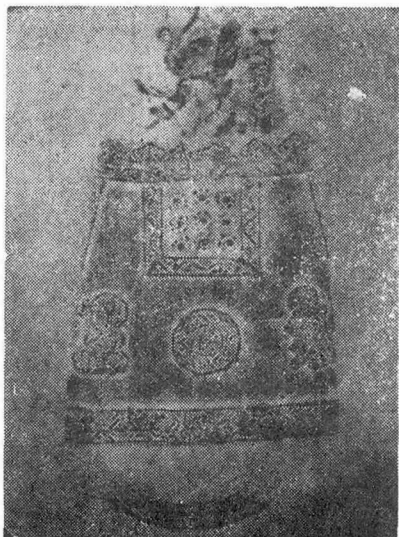


어 懸架케 되었다. 上狹下廣의 形態인데 上緣에는 立狀如意頭文이 周回 되었다. 上下帶는 雷紋이며 四郭廓은 過大하고 各九乳가 配置되었으며 間地의 鐘腹에는 合掌跪坐의 飛天像 二軀와 圓形放射細線紋의 撞座二個 가 下帶에 接近하여 交代하였다. 全面에 濃綠鏽가 덮였으며 一部에 鐵 鏽가 附着되었다. 下端은 〇·八cm의 두께이나 鐘身은 얇아서 歪曲面이 보이나 아담하고 彫鏤는 纖細하다.

(13) 靑銅小鐘 서울 金東鉉氏 藏

龍鈕가 鐘體에 比하여 過大하나 各部樣式이 完備하고 彫鏤도 纖細하 다. 細長한 鐘體 上下에는 唐草紋 花葉紋이 있고 方形乳廓內에는 九乳 가 花瓣內에 突起되었으며 그 밑에는 圓形撞座가 二處에 相對하였고 間 地에는 神像 立像과 樂天坐像 各二軀가 交代하였다. 肩上에는 立狀蓮花 紋이 둘러있으나 一部를 缺하였고 頂上에는 二孔이 있으나 鑄造에 起 因한 듯하다.

甬筒은 貫通되었고 頂上에는 六珠가 달려 있는데 龍鈕는 角筒과 같은 높이로 屈曲되어 있다. 小品이나 彫飾이 鮮明하고 形態도 洗鍊된 手法을 보이고 있다. 日人 條崎(外科醫) 教授의 舊藏으로서 南韓出土라고 할 뿐 詳細는 不明이다. 總高 二三·八cm 鐘身高 一六·一cm(立狀蓮帶端까지) 上徑 一〇·三cm 下徑 一三·五cm 厚 一·五cm



14 青銅小鐘 서울 金東鉉氏藏

龍鈕 甬筒을 全缺하고 鐘身만이 남았는데 全面에 濃綠鏽가 고르게 덮여 있어 아름답다.

上緣의 立狀帶는 三角重瓣文을 이루었고 上帶는 좁고唐草文이 彫刻되었다.

乳廓은 上帶에서 分離되어 方廓을 이루었는데 各九乳가 配置되었으며 唐草文 下帶에 接近되어서 乳廓間地에 圓形卍字 蓮花文 撞座와 菩薩坐像(台掌結跏하고 頭身光을 具備하다) 各二가 交代하고 있다. 鐘體는 上狹下闊形을 이루었고 乳廓은 過大한데 各部 樣式的 配置도 簡明하고 鑄造도 完好하다. 鐘高一九·五cm 上徑一一·一cm, 下徑一六·八cm 厚一·八cm로서 六·二五 戰亂後에 出土되었다고 할뿐 다른 知見은 없다. (13) 14의 圖版은 金東鉉氏의 手拓에 依함)



15 小鐘 (無銘)

十三、四世紀

一九六〇年 春에

忠南 論山 附近 寺

址에서 出土(註)되

었다고 傳할 辨 詳細

히는 알 수 없다. 通

式으로서 龍鈕 甬筒

(頂上에 四珠)이 具

備하였고 立狀蓮紋帶가 있으며 四乳廓內에 九乳가 있고 그 間地鐘體에 蓮紋圓撞座와 合掌坐像이 各二씩 交代하였는데 彫法은 粗略하고 鐘體에 比하여 龍鈕가 크다. 總高一六·九cm 上徑八cm, 下徑一〇·八cm

(註)이 小鐘과 같이 다음의 三點이 發見되었다.

一、青銅金鼓一·無銘 一般型 重圈內에는 蓮文과 雲文. 兩耳. 上徑二三cm

二、青銅有蓋鼎形香爐一·三獸脚 龍形兩耳가 달린 身部에는 雲龍紋과 上緣部에 雷紋이 있으며 蓋에는 流麗한 雲龍紋이 透彫되

고 그 中央에 把珠龍形의 圓形 꼭지가 있다. 高一九·五cm
三、青銅獨臺一·下臺圓形이고 竿柱六節 頂上받침圓形 高一九cm

16 正豐二年銘

小鐘(高麗毅宗十一年一一(五七A·D) 實物調査는 못하였

고 金東鉉氏의 好意로 銘拓一枚를 入手

하였다. 그에 의하면 雷紋下帶에는 圓圈

內에 梵字가 들어있으며 八瓣蓮花文 撞

座間에 銘文 六行이 陰刻되었다(그 위의

拓影으로 보아 撞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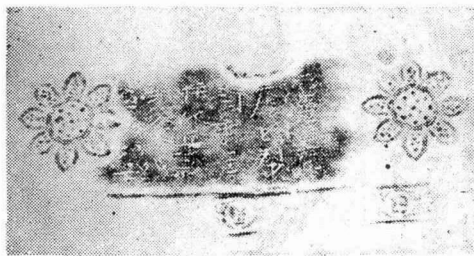
間에 坐像이 配置된

듯하다). 銘文은「正

豐二年庚戌丑中」汀

寺住」持比丘宗」奴

發心□□□□이라 判讀되었다.



拓影으로 보아彫飾이 刻明하고 形態端雅한데 國內에서 個人所藏되고 있을 것으로 推定된다. 兩座座中心은 一三·七cm

八公山地藏寺

鄭永鎬

大邱市에서 桐華寺로 向하는 途中 公山面 百安洞에서 下車하여 徒歩로 約三·五km 東北方 地藏洞을 지나 八公山 露積峰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면 地藏寺 境內에 다다른다. 山麓에 位置한 寺域은 現在 거의 田畚化하여 뚜렷하지는 않으나 狹少한 이 곳 一帶의 山谷으로 미루어 그다지 規模가 큰 寺刹은 아니었으리라 推定되었다(더우기 前號에 紹介한 符仁寺에 比하여 볼 때). 허물어진 石築 위에는 西南向한 法堂址로 高約一〇cm의 石壇이 있고 그 前庭엔 東·西塔二基가 남아 있으며 이 곳에서 一〇m 西便에 木造建物 一棟이 있어 「地藏殿」과 「大雄殿」의 扁額 二枚가 달려 있는데 그 內부에 石佛坐像 一軀가 注目을 끌었다.

一、東·西三層石塔



第二卷 第一號 通卷 六號

新羅式一般型의 雙塔式伽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塔은 原位置이며 二塔이 同一한 手法이나 規模로는 東塔이 西塔보다 多少 큰데(註) 모두 完全치 못하고 一層屋蓋石까지 남아 있다. 그러나 中東塔이 比較

的 完全하므로 그樣式手法을 略記한다.

二層基壇인 下層은 埋沒되어 上層만이 注目되었다. 下基의 높이는 一六cm 二撐柱(幅一九·五cm)로 三區를 이루었다.

一邊長 一二〇cm의 下臺甲石 위에는 角과 四分圓의 「물딩」이 있고 그 위에 高七六cm 幅一五四cm의 上層基壇面石을 받고 있다. 上基의 面石은 幅一五cm의 一撐柱로 兩分하였고(一區 幅五·五cm, 兩端의 隅柱 幅一四·五cm) 上甲

石은(長一七五cm 厚一五cm) 副緣이 있고 그 甲石 위에는 三段의 屋身 괴임이 塔身을 받고 있다. 初層屋身의 高六一cm 幅六四cm 兩端隅柱 幅一一cm이며 初層屋蓋의 落水面 推너 長一〇五cm, 厚五cm로 屋石받침은 四段이다(各層은 모두 四段). 二段의 屋身괴임(高一·五cm, 幅二·三cm) 위에 二層屋身(高一九cm, 幅四五·五cm)과 屋蓋가 있으며(落水面 推너 長八一·五cm 厚四·五cm) 三層屋蓋石은 轉落되어 基壇部에 殘存하였는데 그 上面에는 直徑八cm의 擦柱圓孔이 있다. 塔의 基壇 및 屋蓋 其他의 手法으로 보아 創建當時의 新羅末期로 推定되었는데 境內에 散在하는 屋蓋 屋身 基壇部材로서 復元이 可能할 것이다.

